

2023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우수사례집

스마트팜 청년창업

☆ 꿈이든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023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우수사례집

스마트팜 청년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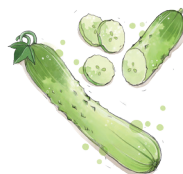
☆ 꿈을 이루다

CONTENTS

04

오이 농장
강태영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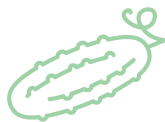
경북 상주 청년창업 보육센터



12

오이 농장
김종선 대표

경북 상주 청년창업 보육센터



20

딸기 농장
박태관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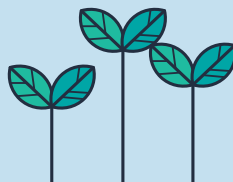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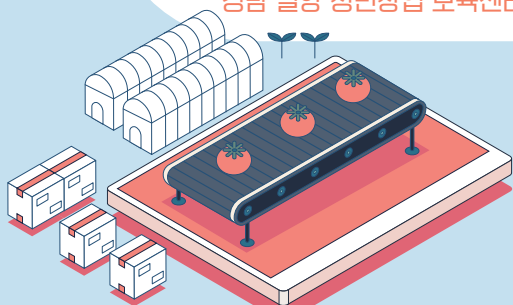
경남 밀양 청년창업 보육센터



28

토마토 농장
문정원 대표

경남 밀양 청년창업 보육센터



36

허브 농장
김호민 대표

전북 김제 청년창업 보육센터



44

방울토마토 농장
박정운 대표

전북 김제 청년창업 보육센터



52

멜론 농장
이지명 대표

전남 고흥 청년창업 보육센터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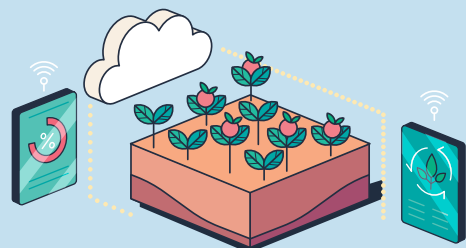
샤인머스켓 농장
나수희 대표

전남 고흥 청년창업 보육센터



68 스마트팜이란?

7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오이 농장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교육기관
경북 상주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기간
2021년 9월 ~
2023년 4월

농장위치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엄암리 898

주요품목
오이

운영현황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면적 3,966㎡
(1,200평)



군인에서 도서관 사서
그리고 경영자(CEO)까지,
열 장파리 보고서에 담긴
스마트한 꿈



강태영 대표

단단하다.
눈빛도 마음도 흔들림이 없다.
하고 싶은 건 해내고야 마는
뚝 부러진 성격.
평탄한 인생길을 두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도 고민하기에 앞서
계획을 먼저 세우는 사람.
장교에서 도서관 사서를 거쳐
스마트팜 청년농부의 길을 가고 있는
강태영 대표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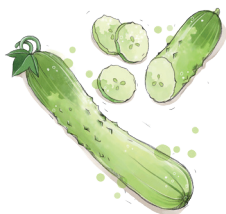
오이꽃 싱그러운 여름

천장에 닿을 듯 늘어진 즐기마다 튼실한 오이가 주렁주렁. 샛노란 오이꽃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온실을 둘러보고 있으려니 싱그러운 오이 향 가득한 젊은 미소가 환한 웃음으로 맞아준다. 능숙한 손길로 오이를 수확 중인 강태영 대표다.

“현재 오이는 1,200평에서 재배하고 있어요. 육묘장에서 가져와서 7월 24일에 정식했고 8월 중순부터 수확을 시작했죠. 9월 27일 작기가 끝나면 1,800평 정도 완숙 토마토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강 대표는 경영형 실습 기간 방울토마토를 성공적으로 재배한 경험이 있다. 8명이 한 팀으로 1,800평 면적에서 약 3억 2천만 원 수익을 올렸고 그 경험을 토대로 현재는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는 ‘고형 배지경 수경재배(순수수경재배와 토양재배의 중간)’ 즉, 인공토양에서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누적 일사량이라고 일정 면적에 어느 정도의 햇빛 에너지가 쌓이면 그걸 측정해서 일정한 물의 양이 들어가도록 세팅해놔요. 농약은 물탱크에 타서 로봇 방제기에 연결해주고 각 라인마다 밀어 넣어주면 자동 살포가 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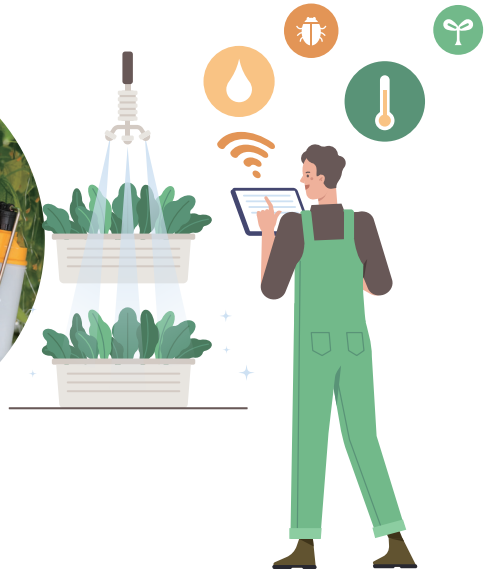
스마트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복합환경제어시스템(마그마플러스) 덕분에 사계절 구분 없이 작기별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다작’이 가능하다.

“오이 끝나고 토마토 시작하면 12월 중순에는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덕분에 한겨울이 되어도 맛있는 토마토가 식탁 위에 오를 수 있겠죠(웃음).”

하지만, 이토록 싱그러운 여름을 보내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반대가 컸다. 얘기를 듣다 보니 열 장짜리 보고서의 등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전이었다.

“대학 진학할 때 부모님은 이공계 진학을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문헌정보학과로 가겠다고 했고, 서로를 설득하다가 제가 열 장짜리 보고서를 써서 드렸죠. 그랬더니 그러면 해보라고. 이번에 농업으로 진로를 바꿀 때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또 썼죠. 열 장짜리 보고서.”

장고 생활을 마치고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결혼을 앞둔 아들. 그런데 갑자기 도서관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 어떤 부모가 말리지 않을까. 하지만 열 장짜리 보고서의 힘은 컸다. 결국 강 대표의 부모님은 아들을 믿기로 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더 큰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



농업의 세대교체를 말하다

강 대표가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훨씬 오래전. 도서관 사서로 일할 때였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강 대표는 미래 사회와 직업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자연스레 4차 산업 혁명과 기후 위기에 눈뜨게 되더라고요. 어떤 직업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될까 고민했죠. 그러다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서 경험이 이토록 도움이 될 줄 몰랐다. 문헌정보학과에서는 ‘도서관학’도 배우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정보학’도 배우기 때문이다. 수많은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부분을 농업에 접목하고 싶다는 강 대표.

“전국적으로 기후도 다양하고 온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기존 재배 매뉴얼은 일반적인 케이스에 맞춰 재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빅데이터, 딥러닝 이런 기술들은 각각의 케이스들을 모아 집합체로 만들어서 다양한 변수, 즉 상황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또한 강 대표는 농업의 세대교체를 말했다. 이렇듯 맞춤 솔루션이 제공되면 농업의 진입장벽은 낮아지고 많은 청년 농업인이 주력적으로 육성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부분은 개별 농가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연구실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농가의 입장에서 연구실과 현장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한창 이야기에 빠져들다 보니 앞에 있는 사람이 농부인지 연구원인지 헷갈린다. 아무튼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밝은 것 같다. 이렇듯 준비된 스마트한 청년이 있으니 말이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들

한창 오이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레일 리프트에 올라가서 하나씩 하나씩. 시골 밭에서 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다 보니 아무래도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힘들 듯 싶다. 하지만 강 대표의 손길은 능숙하다.

“농사라는 게 작물재배 지식도 필요하고 경영 지식도 필요하고 기계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해요. 심지어 기계설비, 전기, 이런 것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 알아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이요. 더운 온실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려면 체력은 기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강 대표. 사서뿐 아니라 장교 생활까지 그동안 스스로 선택했던 경험들이 농사를 짓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고등학교 생활할 때 학교생활기록부 있잖아요. 거기 보면 1년마다 자기 진로를 쓰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1학년 때 군인, 2학년 때 ‘사서’, 3학년 때 ‘경영자’를 썼더라고요. 신기해서 사진도 갖고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참 욕심도 많다. 남들은 하나도 이루기 힘든데 빠짐없이 순서대로 모든 꿈을 이룬 강 대표. 정작 스스로에게는 매서운 잣대를 들이댄다. 임대형 스마트팜 첫 해 성적표를 물으니 성실성은 ‘A’지만 전체적으로는 ‘C’를 주고 싶다고. 왜 이렇게 점수가 찌나는 물음에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다.

“아직 올라갈 때가 너무 많아서요. 이게 자만심을 가지고 만족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거든요. 운전도 3년 차 4년 차 이때 가장 사고를 많이 낸다고 하잖아요. 이제 시작한 지 3년 차 초보 인데 기존 20년, 30년 해오신 분들 경험에 비하면 저는 아직 그분들 발끝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C’라고 생각하고 ‘A’가 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열 장짜리 보고서에 담긴 꿈

상자당 오이 50개씩. 농장 한쪽에 포장된 오이 상자가 쌓인다. 처음엔 통통하고 맛 좋은 오이 자랑을 하더니 이내 상주 오이는 시설이 다 한다며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자랑이 이어진다.

“여기가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커요. 그래서 부대시설이나 교육시설 등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경북 농업기술원도 상주로 이전해 올 예정이거든요.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로 알고 있어요. 교통도 편리해서 지난해 방울토마토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꼭 자랑하고 싶은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강 대표.

“보육센터 담당자들이 엄청 적극적인 분들이세요. 에너지가 많아요. 실습이나 장비들도 교육생들의 의견을 정말 많이 반영해 줍니다. 제가 교육생 때 회장 역할을 하다 보니 교육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전달했는데 단 한 번도 안 된다고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인터뷰용 아닙니다(웃음).”

내내 궁금했던 질문을 강 대표에게 던졌다. 사서를 그만두고 농부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때 강 대표가 작성한 열 장짜리 보고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목표요.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썼습니다. 일단 1차 목표는 살아남기. 그리고 여기 임대형 스마트팜 끝내고 나갈 때 제 온실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금 마련하기. 그리고 실패하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더 단단하게 하기. 그렇게 살아남고 나면 2차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업의 데이터화 그리고 연구실과 농업 현장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 이런 목표와 계획들을 아주 상세하게 썼죠.”

인생에는 직행버스만 있는 게 아니다. 굽이굽이 많은 길을 돌아 청년 농부의 길을 가고 있는 강태영 대표. 열 장짜리 보고서에는 강 대표의 꿈과 함께 대한민국 스마트팜 청년농부들의 미래가 함께 담겨있었다.



경북 상주에서
기르는
오이 작기



육묘
육묘장에서 구입



정식
7월 말



수확/출하
8월 중순

✓ 창업 일은 언제?

2023년 7월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온실 입주



✓ 창업자금은 얼마?

약 2천만 원
(임대료 및 초기비용)



✓ 창업자금 마련은?

개인 자본금



✓ 온실 종류는?

벤로형 비닐온실
PC판+PO필름



✓ 인력 운영은?

상주인력 3명
필요시 비상주 인력 운용



✓ 연간목표 생산량과 예상매출액은?

오이 20톤(2개월)
약 5천만 원 예상
약 2억 8천만 원 목표



✓ 주요 판로는?

경매시장 출하



강태영 대표

‘색안경’은 NO! ‘스펀지’는 YES!

일단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발을 들였다는 건 각오를 단단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해하지 말고 현재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올라가면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도 농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왔지만 그렇게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색안경을 끼고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수용하다가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필터는 그때 사용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능력인 시대니까요.

LIVE

Interview

스마트팜 청창농



강태영 대표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A

공공도서관 근무 당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진로동아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였어요.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다는 것을
당시 중학생이었던 동아리 학생들에게 알려주며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기초부터 시작해
실전에 대한 적응과정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점이
농업 비전공자인 저에게도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주
것으로 보였고, 결국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Q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항상 기후 위기와 인구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의 변화와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관련분야를 탐색하던 중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역시나 스마트팜이었죠. 아직은 과도기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의 농업과 스마트팜을
상상하며 재미있는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

입문 교육, 교육형 실습, 경영형 실습 각 과정을
시작하는 순간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입교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 했지만 입문
교육을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새롭던지. 이제야
처음으로 새로운 분야에 한 발을 내딛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2개월 입문 교육을 마치고
교육형 실습을 시작하는 날 실습 농가에 가서
처음으로 농작업을 경험할 때의 그 느낌도 아직
생생합니다. 경영형 실습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작물을 심을 때의 그
느낌, 작물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공부하던 그 느낌은 앞으로 농업을 지속하면서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결실은?

A 제가 이 분야에 있어 성취한 모든 것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문외한이었던 제가 입교를 위해 농업 기초지식을 스스로 학습했고 입교 후 그 지식을 더 넓고 깊게 만드는 한편 이론으로만 알던 것을 현장에서 직접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죠. 재배 지식은 물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도 충분히 경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시에 스스로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 또한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커다란 결실입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A 많은 부분들이 저희 기수 입교 당시와 비교하면 정말 빠르게 보완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교육과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고 있고, 건의가 있었던 내용들은 바로바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교육생들이 과감하게 투자한 황금 같은 청년기 20개월의 시간이 모두에게 좋은 결실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Q 스마트팜 창업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A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덕분에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큰 혜택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아직 본격적인 고생은 경험해보지 못한 절반의 창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복수의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어요. 제한점과 같은 부분도 각종 공고문이나 설명회 같은 자리에서 여과 없이 이야기된다면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스마트팜을 창업하면서 도움 받은 정부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A 아직은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를 제외하면 창업과 관련한 다른 지원사업을 활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어 월별로 지급되는 바우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료생 사후 지원 컨설팅 사업의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오이 농장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교육기관
경북 상주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기간
2021년 9월 ~
2023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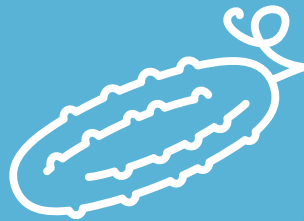
농장위치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엄암리 898

주요품목
오이

운영현황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면적 3,966㎡
(1,200평)



바쁘지만 고마운 일상,
자연과 벗하며
귀농꿈 이룬



김종선 대표

맑고 푸른 자연 속에서
전원생활을 누리며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웃으며 살고 싶었다는 김종선 대표.
스마트팜 덕분에 그 꿈을 이루고
이제는 성공적인 오이재배를 통해
독립 농장 경영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김 대표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만났다.



자연을 꿈꾸고 귀농을 꿈꾸다

눌러쓴 밀짚모자와 목에 두른 수건, 구릿빛 피부까지. 딱 봐도 농부다. 그것도 전문가의 냄새가 폴폴 나는 타고난 농부. 그런데 김종선 대표는 손사래를 친다. 전혀 아니라고. 농업에 관심은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말이다.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았죠. 그즈음 제 친구 한 명이 부모님을 따라 경남 의령으로 귀촌했거든요. 거기를 자주 놀러 갔었어요. 2,000평 정도 감 농사를 하면서 300평 밭에다 고추, 토마토, 가지, 자두, 복숭아를 심어놓고 자급자족하며 살았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도시에서는 항상 어둡던 친구 표정이 거기서는 다르더라고요.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자연이 옆에 있으니까. 그게 부러웠죠.”

하지만 이미 부모가 귀농한 상태였기에 가능했던 일. 친구에겐 부모라는 지원군이 있었지만 김 대표에겐 농촌과의 접점이 전혀 없었다. 그때부터였다고 김 대표는 회상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그 친구보다 좀 더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나도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처음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결국, 김 대표는 방법을 찾았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이곳 상주까지 오게 된 것이다. 현재는 교육 수료 후 혁신밸리 내에 있는 공공임대 숙소에서 지내며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 대표. 마음 맞는 이들과 함께 지내며 전원생활을 만끽한 덕분에일까. 웃는 얼굴이 밝다.

“물론, 어려움도 있죠! 아니 많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깐요. 이젠 농촌이 제 평생 직장입니다.”



오이 전쟁

그런데 김 대표의 온실은 전쟁이 한창이다. 수확기를 맞은 오이 덕에 일손 부족으로 분투하는 중이라고. 그만큼 오이 농사가 풍년이다. 현재 3명의 팀원과 2명의 상주인력까지 5명이 오이 수확에 매달리고 있다.

“힘들긴 하지만 행복한 고민이죠. 돈이 되니까. 초반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극복한 것 같아요. 노동력 문제만 해결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마트팜 환경에서는 1년 365일 계속해서 재배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품질 유지를 위해 보통 2작기 혹은 3작기로 나눠서 재배하는데 김 대표는 올해 3작기를 계획하고 있다. 실 틈이 없단 얘기다.

“지금이 첫 번째 작기예요. 8월 1일에 심었는데 원래는 8월 말부터 수확했어야 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어서 9월 초부터 수확하고 두 번째 작기는 11월 중순쯤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실, 상주하면 떠오르는 건 ‘곶감’이다. 그런데 곶감만큼 유명한 게 바로 상주 오이. 겨울철 백다다기오이 전국 생산량의 70%가 이곳 상주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그야말로 오이 주산지다.

“일단 오이는 워낙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매일 매일이 전쟁이죠. 그래서 판로나 이런데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수확하는 즉시 전량 공판장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좋아요.”

뽕얀 빛깔에 통통 싱싱 먹음직스러운 오이. 오늘도 김중선 대표는 행복한 오이와의 전쟁을 치루는 중이다.

멜론 농장을 꿈꾸다

보육센터 경영형 실습 때 김 대표는 멜론을 재배했다. 오이를 재배하고 있지만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은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다고. 오이한텐 미안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멜론 뿐이라며 웃어보인다. 그래서 임대형 스마트팜 계약이 끝나면 직접 온실을 지어 멜론을 재배하는 꿈을 꾸고 있다.

“저는 멜론을 좋아합니다. 정말 엄청 좋아합니다. 이유요? 예쁘고, 달고, 맛있잖아요.”

단순 명쾌하다. 하지만 이런 꿈을 꾸기까지는 시행착오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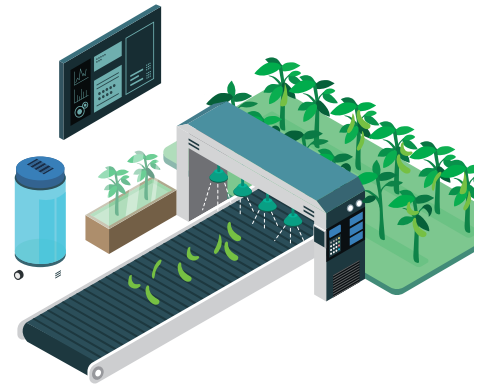
“경영형 실습 때 약 900평에서 멜론 재배를 했거든요. 반반씩 나눠 시간 차 재배를 했는데 1년 동안 총 7작기 나왔습니다. 한 작기 최대 매출은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그런데 수확까지 못 간 작기도 있고 매출이 제로인 적도 있어요. 멜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싼 가격에 컵과일 업체에 전부 넘기는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시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다고.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 멜론을 재배하지 않는 상주에서 판로를 찾는 건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도전이었다.

“엄청 힘들었어요. 일단 멜론은 3개월짜리 작물이거든요. 3개월 중에서 바쁜 건 딱 한 달이고 나머지 두 달은 멜론이 커 가는 걸 보면서 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그 두 달 동안 판로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소매에만 집중했는데 이 소매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매나 공판으로 나가는 비중이 계속 늘어났어요. 왜냐면 사실 비싸게 파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다 파는 거니까요.”

하지만 김 대표는 이겨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고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도 멜론과 함께하는 행복한 꿈을 꾸고 있다.

“스마트팜에서 키우는 작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뭔가 그 작물들을 만질 때 가꾼다는 느낌보다 쳐낸다는 느낌이 매우 강해요. 그런데 멜론은 가꾸는 느낌이 강하죠. 멜론이 처음에는 새끼 오이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놈이 점점 몽골몽골 하게 커지면서 겉에 네트(그물 무늬)도 생기고 하거든요. 이렇게 커가는 모습이 딱 눈에 보여요. 요만했던 놈이 나중에 2kg 거대한 멜론이 되기까지 두 달 동안 지켜보고 있으면 뭐랄까 자식 키우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멜론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난다. 물론 자식 키우는 일이 마냥 달콤한 멜론같진 않다고 오히려 가시 오이처럼 따갑고 상처받는 일도 많다고 하고 싶지만 어쩐지 김 대표가 키우는 멜론은 세상 달기만 할 것 같다.

“이 멜론은 한 그루에 열매 한 개가 열려요. 그래서 수익이 많지 않죠. 나중에 멜론 하게 되면 가지도 할 생각입니다. 가지가 메인 수익이 될 테고 멜론은 좋아서 하는 게 될 테고.”



감사한 삶, 고마운 사람들

바쁘지만 고마운 일상이다. 자연 속에서 행복해하던 의령 친구의 모습을 부러워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김 대표는 상주의 자연 속에서 달콤한 꿈을 꾸고 있으니 말이다.

“보육센터 첫 작기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람 한 명 안쓰고 둘이 했는데 멜론 상태가 정말 좋았어요. 진주로 선별을 보냈는데 선별장에서도 매입하고 싶다고 할 만큼. 꿈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저렴한 가격에 넘기고 싶지 않아 소매 판매를 시작했지만 갈수록 막막한 상황에 고민을 거듭했다는 김 대표.

“그때 보육센터 김○○ 팀장님께 고민 상담을 했어요. 지금도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관공서 쪽에 매대 설치를 해서 저희가 멜론을 다 팔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멜론 1,300개를 다 팔았어요. 두 명이 재배했는데 매출이 2,000만 원. 너무너무 감사하죠. 팀장님도 감사하고 그때 그 상황도 감사하고 아직도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문제도 많았지만, 해결 방법은 늘 있었다. 그리고 그걸 알려준 고마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큰 재산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없어요. 하지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장을 만들지. 그리고 언젠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당연히 창업이죠. 저만의 농장을 만들 겁니다.”

오이가 커 갈수록 달콤한 김 대표의 꿈도 자란다. 이제 열심히 달려갈 일만 남았다.



경북 상주에서
기르는
오이 작기



육묘
육묘장에서 구입



정식
7월 말



수확/출하
8월 중순

✓ 창업 일은 언제?

2023년 8월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온실 입주



✓ 창업자금은 얼마?

약 4천만 원
(임대료 및 초기비용)



✓ 창업자금 마련은?

개인 자본금



✓ 온실 종류는?

벤로형 비닐온실
PC판+PO필름



✓ 인력 운영은?

상주인력 5명
(팀원 3명 + 근로자 2명)



✓ 연간목표 생산량과 예상매출액은?

약 4억원 목표



✓ 주요 판로는?

공판장
(대형 유통사 고려 중)



김종선 대표

많은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세요!

스마트팜은 매우 큰 금액이 투자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좋아하는 작목과 경제성, 그리고 스마트팜의 첨단화 정도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주는 혜택 외에도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인에게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고 이용하면 앞으로 영농활동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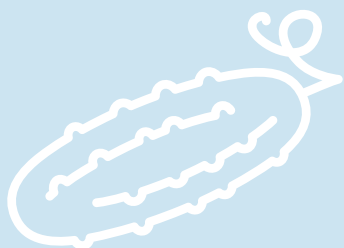
LIVE

Interview

스마트팜 청창농



김종선 대표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A 귀농을 준비하며 주말마다 농장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사병과 관절 통증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던 중 귀농귀촌센터 및 각종 귀농 관련 사이트들 사이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청년농부를 양성하고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미래 농업에 동참하고 마침 제가 꿈꾸던 귀농과도 방향이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관련 자료를 찬찬히 읽다 보니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은 많지만 노지처럼 힘든 자세로 일하지 않아도 되고 효율도 좋고 무엇보다 환경제어를 통해 외부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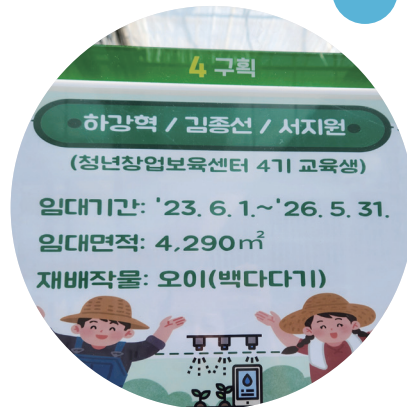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 멜론을 처음 재배했을 때입니다. 지도해주시는 선생님 말씀을 따라 좋은 멜론을 다량 수확했지만 어떻게 판매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농사는 잘 키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움을 주신 덕분에 완판을 하긴 했지만 판로에 대한 고민은 농부들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결실은?

A 앞으로 어떻게 영농을 꾸려 나갈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20개월간 이론, 실습 등을 통해 재배 방법에 대한 자신만의 컨셉을 가질 수 있게 되죠. 물론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의 기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중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기 마련이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길 바랍니다. 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Q 스마트팜 청창농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보육센터에서 교육받다 보면 '내 길이 아니다' 싶어 관행농으로 갈 수도 있고 스마트팜의 매력에 더욱 빠져 스마트농업의 길로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당신은 청년 농업인이죠. 보육센터의 혜택이 아니더라도 청년농업인 혹은 귀농인에 대한 혜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알아보세요. 신청 절차도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창농 기반을 마련하기 전 먼저,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미리 자주 만나고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정착하고자 하는 마을의 주민들은 조금만 신경 써도 좋아하고 기억해 주시지만 반대로 작은 것에도 당신을 신경 쓰이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 친해지시고 속 깊은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A 설비 및 시공업자의 책임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온실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보수를 해야 할 곳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작물이 잘 자라고 설비나 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딸기농장

경남 밀양시
상남면



교육기관
경남 밀양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기간
2021년 9월 ~
2023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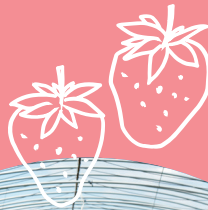
농장위치
경남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365-1

주요품목
딸기(설향)

운영현황
자가창업 / 시설면적
3,024㎡(914평)
전체면적 4,056㎡
(1,226평)



창농 1년 차,
흙에 청춘을 걸고
딸기에 인생을 걸었다



박태관 대표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온실.
 뜨거운 여름의 열기 가득한
 8월의 한가운데서
 붉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박태관 대표를 만났다.
 이제 막 비닐온실 설치를 끝냈을 뿐인데
 그의 눈 속에는 이미 새빨간 딸기가
 알알이 탐스레 영글고 있었다.



좌충우돌, 초보 농부의 독립경영 도전기

꼭 두 달 만이다. 6월부터 짓기 시작한 연동형 비닐온실이 드디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견적을 받기 시작한 건 1년 전인 지난해 8월. 유난히 더운 여름 날씨가 문제였다.

“딸기는 저온성 작물이거든요. 바람이 잘 통하는 딸기의 생육환경에 맞는 시설을 만들고 싶었죠. 업체 찾아다니며 견적 받고 컨설턴트들한테 물어가며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결국, 비닐하우스 견적만 열 곳 이상. 결론은 직접 발로 뛰기로 했다. 업체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 포기한 채 정수기 따로, 양액기 따로, 난방기 따로. 심지어 설비 배치 도면도 직접 그렸다. 모든 게 딸기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물이 문제였어요. 딸기는 물이 좋아야 하는데 이쪽이 물이 안 좋거든요. 지하수를 깊이 파면 철분이라든가 염분이 있어서 그래서 정수기랑 물탱크를 설치했어요. 보통은 농가들이 5톤짜리 1개나 2개 정도 물탱크를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물을 많이 보관하고 싶어서 10톤 물탱크 2개를 설치했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냥 물이 좀 안 좋아도 지하수를 썼으면 편했을텐데 좋은 물로 재배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산 넘어 산 이었다. 한 가지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여기가 제 땅이 아니고 농지 은행 임대 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설 짓는데 승인받는 절차가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담당자 만나 서류 제출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또 제출하고. 모르는 건 시청 여기저기 다니며 물어보고, 또 농협에서 대출도 받아야 하니까 그런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매달렸다.

“이게 농업이 맞나 싶었죠. 농부는 진짜 만능이어야 하더라고요. 비닐온실 지으면서 직접 용접도 하고, 전기도 설치하고 굴착기도 운전하고. 그래도 제가 산업공학과를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해본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지만 배운 걸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 재미있다는 박 대표. 보육센터 졸업 후 독립경영에 도전한 초보 농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딸기는 나의 운명

10년 가까운 회사생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박 대표는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 정도 무작정 해외로 떠났다. 그렇게 운명처럼 만난 푸른 자연과 식물들. 환경과 산림 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농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우연히 보게 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광고. 어떤 게 우연이고 어떤 게 운명인지?!

턱걸이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지원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그래도 지원할 때는 2살 여유가 있었는데 교육 기간이 2년이다 보니 어느새 훌쩍 만 40세가 되었다는 박 대표. 그가 기억하는 보육센터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자 특별한 시간이었다. 특히, 2개월 이론 수업과 6개월의 교육형 실습이 끝난 후 12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영형 실습은 박 대표에게 운명 같은 만남을 선물했다.

“경영형 실습하면서 100평 임대를 받아서 실제로 농장을 운영해봤는데 거기서 딸기를 재배했죠. 밀양이 딸기 시배지(처음 재배한 곳)거든요. 딸기에 반해서 부산에서 밀양으로 아예 이사를 왔습니다.”

밀양 딸기의 매력에 푹 빠진 박 대표는 교육작목인 딸기를 품목 변경 없이 끝까지 이수했다. 그리고 현재도 딸기 농사를 지으며 운명 같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바로 보육센터에서 만난 동기들. 기숙사 같은 방을 쓰며 친해진 멤버들은 얼마 전 박 대표 결혼식 때 축하를 불러주기도 했다. 같은 길을 가다 보니 서로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고 힘들 때마다 의지하며 형제처럼 지낸다.

그리고 현재 박 대표의 곁에는 지난 6월 결혼한 아내도 함께다. 디자인을 전공한 아내는 마케팅과 영업을 전담하며 누구보다 든든한 힘을 보태고 있다. 준비 중인 ‘몬스베리(못생긴 과일)이 더 맛있다는 뜻’ 브랜드도 아내의 작품이다.

“여기 주소가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365-1번지거든요. 365일 열심히 일하는 게 제 운명인 것 같아요.”

박 대표는 딸기 농사가 자신의 운명이라 믿는 듯 했다.



끝없는 도전에 또 도전하다!

박 대표 인터뷰 중에 끼어든 이가 있었다. 경남 밀양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담당 주무관. 덕분에 박 대표에 대한 주변의 평가까지 들을 수 있었다.

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은 대부분 임대형 농장이나 단동 비닐온실을 짓는다고 한다.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 사업계획대로 독심 있게 독립경영에 나선 박 대표. 4연동 비닐온실을 짓고 혁신밸리 인프라를 활용해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해내고 있다. 대출 등 복잡한 행정 절차도 처리하고 전기 승압 문제로 한국전력도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좋은 선례를 많이 남겼다고. 동기나 후배들도 박 대표를 보면서 자신감을 얻는다고 한다. 주변에서 박 대표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하지만 박 대표의 도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현재 임대한 땅은 1226평. 비닐온실만 약 900평 정도. 남은 공간엔 육묘장도 만들 계획이다.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또한 설치 예정으로 올해는 수동으로 조작할 예정이다.

“이번 주 상토가 오면 상토 채우고, 9월 중순에 정식을 하고 두 달 정도 잘 키워서 11월 중순이면 수확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공판장에도 보내고 개인 판매도 늘려 갈 생각이다. 그리고 마지막엔 수출에도 도전할 예정. 현재 품종인 설향은 금방 무르기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에는 좀 더 단단한 금실 품종도 재배해 설향 반, 금실 반, 최종적으로는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대표가 사업계획서를 내민다. 거기에는 하우스 설치와 육묘장 설치 그리고 자가 독립 농장 운영이라고 또박또박 적혀있다. 언젠가는 임대가 아닌 자신의 땅에서 딸기를 재배하겠다는 그의 의지도 함께.

나의 인생 계획서

사실, 딸기는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다. 그래서 규모를 너무 크게 하면 관리가 어려워 소규모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박 대표도 일단 시작은 아내와 부모님과 함께할 예정이다. 내년에 육묘장까지 하게 되면 그때는 고정인력도 생각 중이다.

“점수 잘 주고 싶습니다. A플러스.”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고 싶냐는 질문에 1초도 고민 없이 박 대표가 한 말이다. 보통은 사업계획대로 하기 힘들데 좋은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 직접 세운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가는 자신이 스스로도 대견했던 모양이다.

“보육센터에서 배운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농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수익도 늘어나지 않을까요(웃음).”

1년 차에는 수익보다 농사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박 대표. 딸기 청창농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토마토나 파프리카는 딱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런데 딸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다 보니 다른 작물보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심지어 상토 하나를 선택할 때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처음 계획대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박 대표. 보육센터 수료 후 새롭게 쓰인 박 대표의 인생 계획서에는 오늘도 푸른 꿈이 자라고 있다.



경남 밀양에서
기르는
‘설향’ 딸기 작기



육묘
육묘장에서 구입



정식
9월 중순



수확/출하
11월 중순~이듬해 5월까지

✓ 창업 일은 언제?

2023년 8월
자가 비닐온실 완공



✓ 창업자금은 얼마?

약 3억 8천만 원



✓ 창업자금 마련은?

후계농자금 대출
토지 임차(농어촌공사)



✓ 온실 종류는?

4연동형 비닐온실
반몽골 천장
이중 측창, 앞뒤 마구리 개폐
8온스 다겹 보온 커튼
FCU난방기



✓ 인력 운영은?

상주인력 1명(본인)
필요시 비상주 인력 운용



✓ 연간목표 생산량과
예상매출액은?

약 12톤 예상
약 1억 2천만 원 목표



✓ 주요 판로는?

공판장
직거래(온라인판매)



박태관 대표

‘농심’은 ‘초심’ 실수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독립 후 첫 작기라 걱정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배운 대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속에서 얻는 즐거움이 더욱 큼니다. 올해 저의 목표는 실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해에 잘 되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분명 평균 이상의 꾸준한 성과가 나올 거라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도전하세요!

스마트팜 청창농
체크리스트
박태관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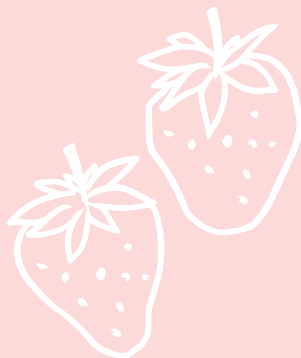
LIVE

Interview

스마트팜 청창농



박태관 대표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A 평소 영농에 관심은 있었지만 직접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조경과 산림 관련 공부를 하던 중 우연하게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다 싶었죠. 그때 농업에 대한 확신이 생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Q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튼튼한 뿌리와 줄기를 형성하고 잎과 열매에 충분한 양분을 공급하는 등 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팜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보육센터 교육을 받으면서 이미 저만의 농장을 꿈꾸고 준비했죠.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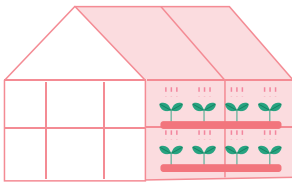
A 교육과정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동기들과 멘토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있기에 힘을 낼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죠. 교육이 끝난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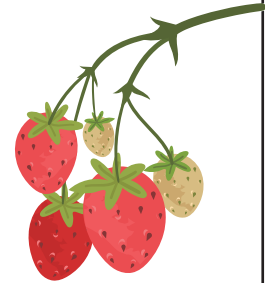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결실은?

A 제가 운영하는 저만의 농장이 생겼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 거죠. 나의 농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솔직히 초기 자본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전했어요. 스마트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작물 재배 이론·실습 및 강사, 컨설턴트, 교육생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교육 과정 내내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료 후 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밀양에 정착해 온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청년 농업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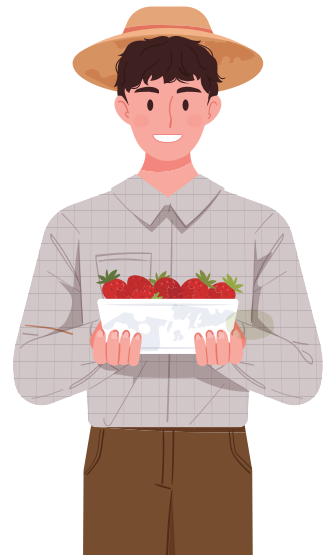
Q 스마트팜 청창농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강의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같은 작물이라고 다른 전문가 강의 건너뛰면 절대 안 됩니다! 보육센터에 오는 전문가들의 강의는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듣고 배우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물 재배의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운영 방법 및 재배 방법은 각각 전문가마다 다르고 특색있는 기술들이 많기 때문이죠. 성공한 전문가의 노하우를 습득하면 그 기술을 활용해 실제 농업 현장에서 더 많은 관련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A 교육 시작 일정과 육묘 기간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보면서 배우면 이해하기도 쉽고 좀 더 상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요.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현장에서 육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마토 농장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교육기관
경남 밀양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기간
2021년 9월 ~
2023년 4월

농장위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1132

주요품목
토마토(TY트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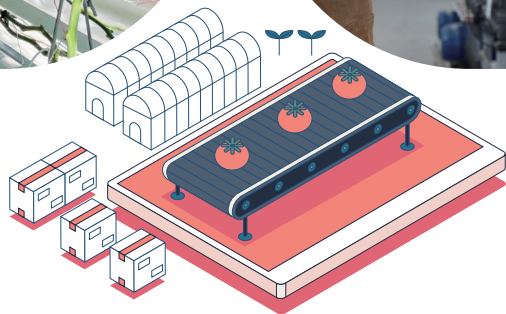
운영현황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면적 1,550㎡
(468평)

선물 같은 일상,
우직한 토마토 아빠



문정원 대표

아내에게 말했다. 귀농하고 싶다고.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2019년이였다.
그렇게 취미 삼아 인터넷을 찾아보며 몇 년을 상상하고 꿈꾸던 귀농.
가 보지 못한 길이었기에 그래서 더 가 보고 싶었던 길.
그 길 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문정원 대표를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만났다.



우리 집 넷째를 소개합니다!

전화를 받더니 금세 표정이 환하게 바뀐다. 영락없는 아빠 미소다. 인터뷰 때의 진지함은 어디로 가고 주말에 가겠다는 약속을 건네는 문 대표.

“첫째가 9살 딸, 둘째가 6살 아들, 셋째가 3살 아들입니다. 아내가 고생이 많죠.”

일주일의 절반은 이곳 경남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토마토를 키우느라 창원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기러기아빠. 모든 게 아내 덕분이라며 공을 돌린다. 세상 가장 힘들다는 자식 농사를 아내가 전담해준 덕에 문 대표는 토마토 농사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토마토까지 자식이 넷이나 됩니다. 한창 손도 많이 가고 힘들죠. 그런데 재밌더라고요.”

문 대표는 보육센터에서도 토마토를 키웠다. 넷째라고 부를 만큼 자식 키우듯 맘과 열정을 쏟았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수료 후 임대형 스마트팜에 도전하면서도 그의 선택은 토마토였다.

“일단 작물이 튼튼해요. 잘 안 죽고, 그래서 초보 농부한테 유리하더라고요. 손실이 적으니까.”



유리온실에서 데이터 농업을 하고 싶은 문 대표에게 토마토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관련 전문가들도 많고 정형화된 데이터가 많아 배우기도 쉽고. 나중에 파프리카나 오이, 가지 등 대형온실에서 할 수 있는 작물의 기초가 되는 작물이 바로 토마토란다.

“온도나 습도 등 환경을 조절해도 잘 안 죽으니까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줘볼 수 있죠 언젠가는 이것 기초로 해서 다른 작물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제야 이해되었다. 왜 농장 이름이 ‘아토’인지. 아토는 순우리말로 ‘선물’이라는 뜻이다. 평생 농사와는 관련 없는 인생을 살아온 문 대표. 그에게 토마토는 자식처럼 소중한 선물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찾아와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



뜨겁게 키우는 토마토

눈앞이 노랗다. 8월 한낮의 열기로 달아오른 유리온실에 온통 둘러놓은 방제용 노란 끈끈이 덩어리. 하지만 문 대표는 실 틈이 없다.

“지금이 정식 시기거든요. 6시 정도 출근해서 작물에 물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죠. 안 그럼 시들 하거든요. 병이 든 거면 작물을 바꿔주고 기기 이상이면 기기를 바꿔주고.”

오후에도 작업은 이어진다. 4주 정도 지나 작물이 크면 줄기가 감고 올라갈 수 있도록 유인 줄을 걸어주고. 햇빛이 강한 걸 확인하고는 다시 물을 더 넣어주고 햇빛을 가려주고. 이내 컴퓨터 앞에서 점검 작업을 한다.

“양액이 정량만큼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한 번 더 넣어주고 좀 넘쳤으면 내일은 어떻게 할지 팀원들과 회의를 해요. 오늘 양액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 내일은 양액을 좀 늦게 주자 혹은 양을 적게 주자 이런 식으로요.”

일반 농가와와는 다르다. 물도 양분도 조절이 가능하다. 기계실에 설정해놓은 대로 원하는 만큼 더 줄 수도 뺄 수도 있다. 땅은 토질이 산성일 때도 있고 알칼리일 때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 대응하기가 쉽지 않지만 스마트팜은 생육환경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다. 심어놓은 대로 크는 게 아니라 농부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할 일이 많아요. 조금만 더 손이 가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교수님들도 선배 농부들도 토마토는 주인이 우직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들어도 참고 일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다른 작물은 시원하게 크니까 괜찮은데 토마토는 뜨겁게 키워야 한다고요.”

1.5세대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모든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문 대표가 토마토 농사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러한 스마트팜 덕분. 그렇다 보니 경남 밀양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대한 문 대표의 애정은 남다르다.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전국 네 곳의 혁신밸리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중 경남은 유럽에 있는 선진 농업과 시설을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해 세워진 곳이라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농업기술이나 시설을 전파하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곳이라 아마 국내에선 여기가 제일 최신식일 겁니다. 2019년도에 지어진 유리온실 중에서는 제일 최신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적으로 부족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온도, 습도, 양액 등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재 컨설팅을 받으며 이 시기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거기에 맞춰 세팅하고 있다.

“이게 약 1.5세대 스마트팜이라고 해요. 2세대로 넘어가기 전인 거죠. 2세대는 저희가 온도, 습도를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세팅까지 해주는 우리가 꿈꾸는 그야말로 리얼 스마트팜이죠.”

아직은 경영형 실습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는 문 대표. 직장인으로 치면 ‘인턴 농부’ 요런 느낌? 보육센터 수료 후에도 컨설팅이나 간단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숨통이 트여요. 그래서 더 큰 꿈도 꿀 수 있고요. 보육센터에서는 동기들 모두 활용했던 ‘부림뜰’이라는 브랜드로 공판장에 보냈는데 경매가를 잘 받았어요. 이제는 ‘아토’라는 저만의 브랜드로 성공해야죠.”



일하고 공부하며 꿈꾸는 농부



현재 3명이 운영 중인 1,500평 농장은 1인당 500평씩 공동경영 체제로 수입도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 최대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내년 3월 토마토 수확량이 늘어나면 아르바이트식으로 인력을 활용할 예정.

다음 주엔 수출계약도 예정되어 있다. 농부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판로인데 보육 센터를 비롯해 주변에서 도움을 주었다고.

“목표는 수확한 토마토 전량 수출이죠.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도전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될지 모르겠네요(웃음).”

요즘 문 대표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 인문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까지 받았지만 전문 농부가 되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에 재학 중이거든요. 이번에 졸업입니다. 내년에는 부산대학교 농업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고요. 이왕지사 농업을 하려고 왔다면 농업 공부를 전문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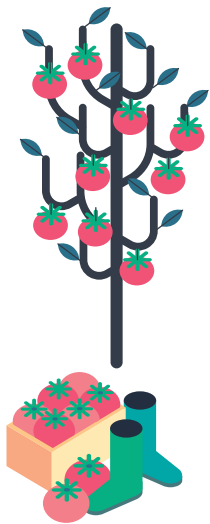
열심히 공부하며 일하는 아빠가 멋있어 보여서일까? 커서 아빠처럼 농부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에게 흔쾌히 “오케이”를 날렸다는 문 대표. 슬쩍 사업계획서를 내밀더니 가슴에 담아둔 새로운 꿈을 꺼내 보인다.

“3년 임대가 끝나고 3명이 그대로 ‘아토’를 운영하게 된다면 대출 지원을 받아서 한 3,000평 정도로 늘려서 유리온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유리온실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요. 안되면 연동형 비닐온실을 지어 대규모 농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이나 다른 작목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올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고생한 만큼 보람 있을 겁니다. 자식 농사가 그렇듯이요. 키울 땐 어렵고 힘들지만, 막상 키워놓으면 언제 이렇게 컸나 싶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버팀목이 생기는 거죠.”

‘아빠’라는 이름으로 우직하게 공부하며 토마토를 키워내는 문 대표의 앞날엔 선물같은 일상과 행복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토마토 아빠 파이팅!



경남 밀양에서
기르는
‘TY트러스트’
토마토작기



육묘
육묘장에서 구입



정식
8월 중순



수확/출하
10월 중순 ~ 이듬해 7월

✓ 창업 일은 언제?

2023년 7월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온실 입주



✓ 창업자금은 얼마?

약 2천 500만 원



✓ 창업자금 마련은?

경영형실습기간 수익금
개인저축



✓ 온실 종류는?

벤로형 유리온실
(벤로형: 연동형 온실의 한 종류)



✓ 인력 운영은?

상주인력 3명
(3인 1팀 공동 재배/경영)
비상주인력 1~2명 계획



✓ 연간목표 생산량과
예상매출액은?

평당 140kg 예상
약 3억 9천만 원 목표



✓ 주요 판로는?

일본 수출 중심
국내 주요 청과시장 출하
온라인스토어 운영



문정원 대표

‘정성을 다해 키우면 ‘좋은 수확’이 기다립니다!’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육을 농사에 부모를 농부에 비유한 말입니다. 농부가 때맞춰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뽑아내며 가지를 쳐내야 좋은 열매를 맺듯 정성을 다해 자식을 키우면 좋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리며 노력한다면 자식 농사도 토마토 농사도 분명 제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아빠의 마음’으로 함께하며 곁에서 지켜볼 테니까요!

스마트팜 청창농
체크리스트
문정원 대표

LIVE

Interview

스마트팜 청창농



문정원 대표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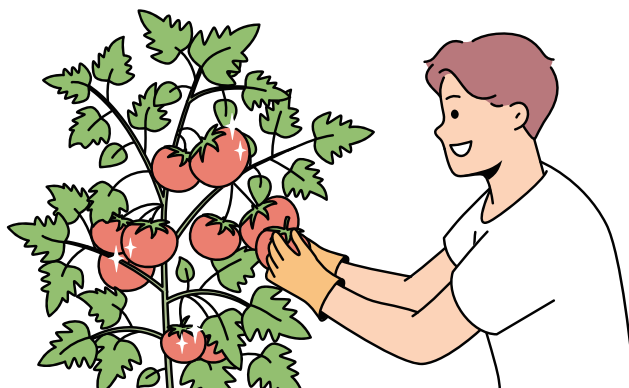
A 토지개발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농지 활용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스마트팜 관련 교육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스마트팜 혁신밸리 광고를 보고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신 시스템을 갖춘 유리온실과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보니 향후 영농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Q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데이터화된 농업정보를 이용해 작물에 최적화된 재배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이 매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후회 없죠.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 경영형 실습 때였어요. 직접 재배한 작물이 최고 품질로 상품성을 인정받았죠. 구슬땀을 흘려 직접 재배한 작물이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결실은?

A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용기 내어 도전한 스마트팜이 제 삶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형, 경영형 실습을 함께한 우리 팀원들이요. 현재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절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사업파트너를 얻은 게 가장 큰 결실인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서로 도와줄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하고도 행복한 일 아니까요.

Q 스마트팜 청창농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저 또한 처음 농업을 접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 일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마음가짐이죠.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주어진 교육환경과 교육생 혜택 및 지원 사업들을 활용한다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어느 교육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선후배 기수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임대형 스마트팜 수료생들이나 경영형 실습 선배 기수들은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못지않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멘토·멘티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A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보육센터 담당자들이 워낙 적극적이라 덕분에 무사히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개월이라는 긴 시간 일정한 소득 없이 교육에 참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도중에 포기한 교육생들도 생업 관련 때문에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육생들의 실습비 인상 등 금전적인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브 농장

전북 김제시
백구면



교육기관
전북 김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기간
2021년 9월 ~
2023년 6월

농장위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997

주요품목
허브

운영현황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면적 3,840㎡
(1,161평)



특수채소로 승부수,
허브로 틈새시장 활짝 열다



김효민 대표



바질, 루꼴라, 애플민트, 로즈마리, 이탈리아파슬리, 타임, 고수, 치커리.
보육센터에서 김효민 대표가 키운 허브들이다.

소셜라이브 및 SNS 등 100% 직거래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허브류를 통해 틈새시장 접근에 성공한 다재다능 농업인.
은은한 허브 향기처럼 차근차근 꿈을 이뤄나가고 있는 김 대표를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만났다.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가끔은 의도했던 하지 않았든 새로운 삶이 펼쳐질 때가 있다. 의도 한대로 살려고 하지만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에게도 그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었다. 저 멀리 호주에서였다.

“대학 졸업 하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젊은 청년들에게 1년간 자유롭게 거주, 취업, 여행,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프로그램)를 떠났거든요. 경험도 쌓고 영어도 배우려고 갔어요. 호주에 한 6년 정도 있었는데 처음 2년은 농장에서 일을 했죠. 양배추와 양상추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기업형 농장이었는데 규모가 무척 컸어요. 그리고 나머지 4년은 도시로 가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죠. 공항 렌터카 회사에서 일도 해보고 바리스타로 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것이다. 당시 김 대표는 호주에서 만난 친구들과 에어비앤비(숙박 공유) 사업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관광이나 서비스 사업이 완전 문을 닫게 되면서 미래를 다시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고민을 거듭하던 김 대표는 기업형 농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일단 농업쪽으로 진로를 정했어요. 1차 산업도 해봤고 2차 산업도 해봤고 3차 산업도 다 해봤으니까 이런 경험을 살려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공이나 서비스업까지 할 수 있는 6차 산업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다. 호주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상담받고 싶어 한국으로 전화했지만 대부분 뚝 끊어버리기 일쑤였다. 알고 보니 국제 전화라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를 받았던 것. 그래서 수화기를 들고 상황을 설명해가며 겨우겨우 정보를 얻어낸 게 '청년 후계농 사업'이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지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호주 생활을 놓기도 어려웠다. 결국 긴 고민 끝에 귀국을 결정했다.

“한국에 와서 스마트팜 관련 교육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다 여기 전라북도에서 하는 6개월짜리 장기 교육을 알게 돼서 신청했죠. 그렇게 교육받고 나서 다시 20개월 동안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까지 하게 되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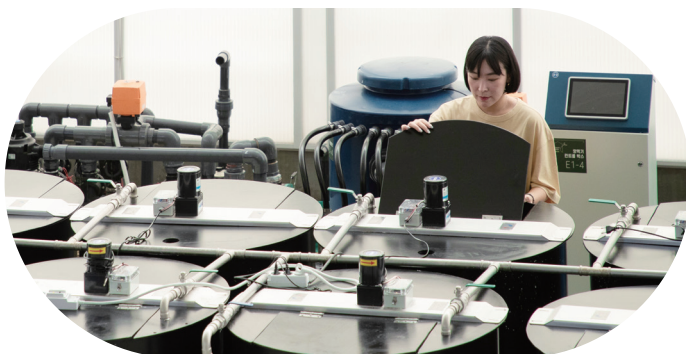
참 먼 길을 돌아왔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던 스마트팜을 호주에서 알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하지만 호주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김 대표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원할 때 원하는 대로 키우는 스마트팜

경쟁률이 높았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찾는 청년들이 이토록 많을 줄 생각 못했다. 하지만 김 대표를 포함해 호주에서 함께 돌아온 친구들까지 다행히 3명 모두 선정이 됐다. 덕분에 교육도 함께 받고 실습도 함께하고 결국 우수교육자로 선발되어 지금의 임대형 스마트팜까지 입주하게 된 것. 모든 게 팀워크가 만든 성과였다.

“호주에 있을 때도 셋이 팀워크가 좋았어요. 시급제가 아닌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식으로 셋이 일한 적이 있는데 다른 팀은 독일, 뉴질랜드 등 서로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희는 셋이 잘 맞았죠. 추구하는 바도 같고 각자 잘하는 게 분명했거든요. 작물 재배와 관리, 환경제어, 거래처관리와 납품 등 서로 역할 분담이 딱 나뉘지더라고요.”



그렇게 스마트팜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작물을 언제든지 키워서 생산할 수 있고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온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모니터링할 수 있다. ICT 기술을 활용해 온도, 습도 관리는 물론 필요한 영양분을 알맞은 시기에 공급해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여러 대처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

“경영형 실습 때 수경으로 허브를 재배했어요. 수경재배가 장점이 많거든요. 토경 농사를 지으려면 물 빠지는 거라던가 습한 거 이런 토양의 성질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경재배는 어떤 양분이 필요한지 그 부분만 맞추면 되니까. 예를 들어 작물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이걸 질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질소를 더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처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펄라이트라고 무기질 베드에서 허브를 재배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국내에서 허브를 수경재배 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던 것. 매뉴얼도 없고 토경 재배한 허브와는 환경이 달라 컨설팅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찾아보니까 해외 쪽은 수경재배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는 외국 서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 해외 온실에 메일을 보내기도 했어요. 구글 검색해서 EC(전기 전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PH(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했죠.”

처음 길을 만들며 앞으로 나아가는 건 힘든 일이다. 보육센터 교육과정을 통해 선배들이 닦아 놓은 길을 걸어오며 본인 또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었다는 김 대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농업에 뛰어들었다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며 그래서 더욱 할 일이 많다고 한다.



틈새시장에서 발견한 가능성의 길

전국 4개 보육센터 중 유일하게 특수채소인 엽채류를 교육하고 있는 전북 김제. 하지만 엽채류는 딸기나 오이, 멜론, 토마토 등 다른 작물에 비해 가장 어려운 품목으로 꼽힌다. 다른 작물은 공판장을 통해 유통망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 있지만 엽채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 농업에 있어서 유통과 판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김 대표의 눈에는 새로운 시장이 보였다.

“허브가 강점이 많거든요. 씨앗으로 자가육묘가 가능하고 2달이면 수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판로가 없으니까 고민을 많이 했죠. SNS랑 라이브 방송 통해서 직접 판매를 했어요. 100% 완판했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소문나다 보니까 식품회사나 큰 기업에서도 납품 요청이 오고 다른 팀보다 재배를 늦게 시작했는데도 1억 가까이 매출을 올릴 수 있었어요.”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김 대표는 멋지게 해냈다. 온라인을 활용해 유통과 판매를 직접 해결했다. 품질 좋은 허브를 연중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의 장점과 소비자화 직접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직거래의 장점을 합쳐 이뤄낸 뜻깊은 성공. 무엇보다 젊은 청년이기에 가능한 도전이었다.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걸 하고 싶었어요. 이걸 돈이 되고, 이걸 재배가 편하고, 이런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면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나만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니까. 호주에는 바질이나 루꼴라, 애플민트 이렇게 유기농으로 재배한 허브가 많거든요. 그런데 국내에는 대규모로 특수채소를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은 건강 때문에 샐러드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레스토랑이나 카페 수요도 많다 보니 앞으로 이쪽 특수 채소시장이 커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허브의 잠재력을 확인한 김 대표는 경영형 실습에 이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도 허브를 선택했다. 실습 때는 교육생이라 단발성 계약밖에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이제부터는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 본격적으로 허브를 키워나갈 예정이다.



6차산업의 꿈

현재 김 대표의 임대형 스마트팜은 1,200평! 500평이었던 실습 때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다. 이제 막 정식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미 김 대표는 3년 뒤를 생각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중이다.

“현재 복합환경제어시스템(호겐도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팜은 온도 등 재배환경을 조절할 수 있어 농가들이 출하하지 않는 여름과 겨울에도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니까. 열심히 일해서 임대 끝나면 독립 해야죠. 여기 경험을 바탕으로 1차 산업이 어느 정도 탄탄해지면 6차 산업을 하는 게 제 목표예요. 허브의 장점이 가공이거든요. 향신료로 쓸 수도 있고 소스도 만들 수 있고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정말 무궁무진해요.”

아직은 틈새시장에 불과하지만, 특수채소의 가능성을 발견한 김 대표. 작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면서 나중에는 농가 카페도 운영하고 그렇게 자신만의 브랜드를 키워나갈 생각이다.

“농장 이름은 ‘퍼핑빌리지’예요. 호주에 있을 때 일했던 농장이 토마스 기차로 유명한 퍼핑빌리지 근처였거든요. 호주에서의 경험이 여기까지 이어졌다는 의미로 지었어요.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저를 김제까지 오게 한 곳이 퍼핑빌리지니까요.”

살다 보면 가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답을 찾을 때가 있다. 힘든 과정에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다. 온라인 스토어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 대표. 온실을 가득 채울 은은한 허브 향기가 기다려진다.



전북 김제에서
기르는
허브 작기



파종/목도
9월초



정식
9월 중순



수확/출하
10월 중순 (연중재배)

✓ 창업 일은 언제?

2023년 7월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온실 입주



✓ 창업자금은 얼마?

약 1천 500만 원
(임대료 및 초기비용)



✓ 창업자금 마련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영형 실습기간 수익금



✓ 온실 종류는?

유리온실



✓ 인력 운영은?

상주인력 3명
수확시기 비상주 인력
1~2명 예정



✓ 연간목표 생산량과 예상매출액은?

약 16톤 예상
약 6억 원 목표



✓ 주요 판로는?

온라인 직거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거래처 납품 (레스토랑 등 업체)
계약 납품(음료 가공회사,
화장품회사 계약 예정)



스마트팜 청창농
체크리스트

김효민 대표



김효민 대표

‘실패’도 ‘경험’이란다!

교육받다 보면 하루하루가 어려움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실패도 경험이니깐요. 다시 도전하면 되죠. 기회를 잡으세요. 보육센터 교육과정은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실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작은 기회라도 잡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아닐까요? 도전하고 경험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LIVE

Interview

스마트팜 청창농



김효민 대표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A 호주에서의 워킹 홀리데이 경험 덕분이었어요.
양배추와 양상추를 재배하는 대규모 기업형
농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국내와 다른 농업환경을
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국
후 농업 관련 교육을 알아보다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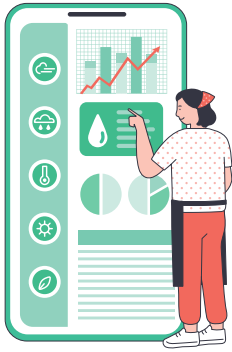
Q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농업에 도전하기로 한 후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일반적인 토경방식은 접근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팜은 저처럼 전공이 다른 비농업계
청년들도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이상기후 등 기상재해가 많은데
그래서 더더욱 스마트팜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물재배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만큼 젊은 청년들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정부에서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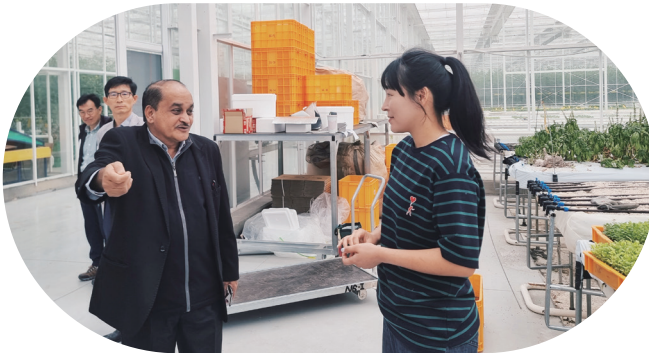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 온라인 판매로 100% 매출 올렸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스마트스토어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온라인 직거래를 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입소문이 나니까 여러 곳에서 납품 요청이 오더라고요. 스타벅스 계절 메뉴인 '바질 레몬 셔벗 블렌디드'에도 허브를 납품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가장 기분 좋고 흥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채소는 신선도가 관건인데 배송이 문제였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더라고요. 청년후계농을 대상으로 한 우체국택배지원사업에 선정된 덕분에 신선한 채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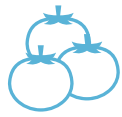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결실은?

A 자신감이요. 여기가 아니었으면 절대 이만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2년 차라 아직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결실인 것 같습니다. 김제에 연고도 없고 농업을 전공하지도 않았지만,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Q 스마트팜 청창농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믿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경영형 실습은 이미 다 갖춰진 시설에서 1년 동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실패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기회잖아요. 그 가치를 안다면 두려워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방울토마토 농장

전북 김제시
백구면



교육기관
전북 김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기간
2021년 9월 ~
2023년 6월

농장위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997

주요품목
방울토마토

운영현황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면적 1,920㎡
(580평)



스마트팜으로
끝장 볼 겁니다!
한다면 하는,
사나이 청년농부



박정윤 대표



가장 성실한 사람. 가장 주도적인 사람.
가장 매출이 높은 팀.
가장 목표가 큰 사람.
모두 박정윤 대표의 얘기다.
저마다 다른 색깔을 가진
48명의 수료생.
하지만 박 대표에 관한 질문에
보육센터 이○○ 주 무관은
잠깐의 고민도 없이 시원한 대답을 내놨다.
직접 만나보니 정말이다.
큰 일 할 사람이다. 박 대표.



워크홀릭에서 스마트팜 홀릭으로

부산 사나이가 변했다. 김제 시민으로. 마지막 직장생활을 했던 경기도 이천에서의 경험이 박 대표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절반은 도시 절반은 농촌인 이천은 조금만 도심을 벗어나면 쉽게 농촌을 접할 수 있는 도시다. 2년 반 정도 회사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박정윤 대표.

“어느 날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스마트팜이나 청년농업에 관심이 생겨 찾아 보니 알고리즘에 의해 관련 정보가 뜨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 눌러봤는데 그게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정보였어요.”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무조건 해내고 마는 성격이지만, 농업과 전혀 연관 없이 살다가 모든 걸 내려놓고 갑자기 농업인이 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다.

“끝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다닐 때도 미친 듯이 될 때까지 일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이거 분명 내가 잘한 성과 같은데 왜 나한테 안 돌아오지?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자영업을 두 번 정도 했던 경험 덕에 나름의 경영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농업에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나한테 전부 수익으로 돌아오니깐.”



차근차근 준비해나갔다. 스마트팜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경험도 없었기에. 뭐든 관련된 경험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1년간 종묘사에서 일을 했다. 농업과 관련된 일이니 어떻게든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선발된 것 같아요. 종묘사에서 일 할만큼 스마트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고 거기서 제 나름대로 공부하며 많은 준비를 했거든요.”

삼십 대 중반의 나이에 도전한 제2의 인생. 김제에서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박 대표는 스마트팜홀릭이 되었다.



독심으로 버티내다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박 대표 포함 3명이 한 팀으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보육센터에서는 오이를 재배했는데 인력 문제로 작목을 바꿨다. 요즘 박 대표의 하루는 단출하다. 오전 7시에 일을 시작해 오후 5시까지 계속 일만 한다.

“완숙 토마토보다는 조금 더 힘들고 오이보다는 조금 편하고 방울토마토가 딱 중간 이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일손 구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선택한 거죠.”

초보 농부라는 말이 무색하다. 작물에 대한 이해도 결단력도 진짜 농부가 되어가고 있는 박 대표. 하지만 교육센터에서 처음 이론 수업 듣던 날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아마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내 온실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싶어서 하는 건데 스마트팜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잖아요. 물론 지원사업이 있지만 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교육 첫 시간에 아, 나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나는 못 하겠다 스마트팜. 지금 난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일단 해 보자는 생각이 앞섰다. 독심으로 버티다 보니 점점 재미가 느껴졌고 청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아, 이제는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다. 전통적인 농사와는 달리 설비관리부터 환경 제어나 장비 수리까지 모든 걸 배워나갔다.

“현재 복합환경 제어시스템(프리바)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과 양액 등 작물에 필요한 환경을 조절해주는 설비인데 그런데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론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직접 해 보니 어렵더라고요. 이게 맞나? 하고 버튼을 누르면 물이 터져 나오고(웃음). 그렇게 실수 하면서 하나하나 놀러보면서 배워나갔어요. 어쨌든 지금은 교육 기간이니까 나중에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해나갔던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이겨 낸 결과는 달콤했다. 그때 그만두었다면 오늘의 박 대표의 없었을 테니 말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농사는 더더욱 그렇다.



준비하는 농부가 결실을 맺는다

‘헤이스마토’ 박 대표가 운영하는 스마트팜 브랜드다. 스마트는 말 그대로 ‘스마트팜 토마토’라는 뜻.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 앞에 ‘헤이’를 넣었다. 단순히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토마토가 아니라 동네 과일집 아저씨처럼 신선하고 맛있는 토마토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 싶어 하는 박 대표의 경영철학이 담긴 이름이다.

“사실, 청년들이 일반 농가와 다르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브랜딩이나 마케팅 같은 거잖아요. 그래야 온라인 판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격증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선 지게차 자격증은 필수. 박 대표도 여러 개의 자격증에 도전 중이다. 좋은 결실을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박 대표의 생각.

“여기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오려면 우수 농업인 교육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고 나올 때쯤 준비한 게 아니라 저는 꼬박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지난해 공고를 보면서 이 부분은 부족하니까 더 채워야겠다. 이 부분도 부족하니까 더 채워야겠다. 점수를 채우려고 무척 노력했죠.”

지난해엔 김제시에서 하는 축제에 농산물 판매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결과는 성공적. 3일 동안 수확한 모든 오이를 완판했다. 게다가 축제에 참가한 덕분에 지역경제 공동체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 농업인 교육생으로 선정되었다.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니까 재미있죠. 힘든 줄 몰랐어요. 그때 마침 제가 김제로 전입했거든요. 아, 내가 김제 시민으로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뿌듯하더라고요.”



현재 박 대표는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 전입신고까지 마친 완전한 김제 시민.

올해 박 대표는 특별한 목표를 세웠다. 나중에 새만금 농업용지 입주할 계획을 갖고 구상을 마친 상태. 새로운 땅에서 김제시를 대표하는 6차산업 농장을 운영하는 게 박 대표의 꿈이다.

인생을 바꾸는 20개월의 마법

이렇듯 박 대표가 큰 꿈을 꾸게 된 밑바탕에는 전북 김제 청년창업 보육센터가 있다. 첫 수업 시간에 ‘포기’를 생각했던 박 대표가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스마트팜의 꿈을 키운 곳. 해마다 많은 교육생이 이곳에 들어 오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부단한 본인의 노력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끝까지 가보라고 하고 싶어요. 일단 해봐야죠. 아직 젊는데.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20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는데. 하다 보면 도움의 손길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6개월 동안 선도 농가에서 교육형 실습할 때 농가 대표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지금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건 팀원들이고요.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팀원도 있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고마워하는 또 한 사람. 전북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시작한 3년 전부터 학생 교육을 담당한 이○○ 주무관이다. 마침 자리를 함께한 이 주무관은 스마트팜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과 꾸준함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스마트팜화 되더라도 그것을 계속 보면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늦게 혹은 빠르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생산량과 품질 그리고 소득에까지 영향을 주죠. 그래서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이라면 성실함과 꾸준함 거기에 플러스 체력까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이 사실 저는 20개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은 수료 후에도 박 대표처럼 충분히 역할을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스마트팜의 미래가 참 밝다. 후배 영농인들이 어려움 없이 농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때로는 냉철하게 때로는 따스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도우며 농촌의 미래를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박 대표의 내일이 기대된다.



전북 김제에서
기르는
방울토마토 작기



육묘
6월 말



정식
8월 초



수확/출하
9월말 ~ 10월 초

✓ 창업 일은 언제?

2023년 8월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온실 입주



✓ 창업자금은 얼마?

약 2,500만 원
(임대료 외 초기비용)



✓ 창업자금 마련은?

개인 자본금



✓ 온실 종류는?

유리온실 + 비닐온실



✓ 인력 운영은?

상주인력 3명
비상주 인력 1명(정식/수확)



✓ 연간목표 생산량과 예상매출액은?

약 35톤 예상
약 1억 4천만 원 목표



✓ 주요 판로는?

공판장
로컬푸드



박정윤 대표

일은 '계획'하고 사람은 '배려'하세요!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기 위해 1년을 준비했어요. 공고가 나기 1년 전부터 서류, 필기, 면접 등 항목별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계획을 수립해 단계별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팀으로 온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는 필수입니다. 기왕이면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은 철저하게! 사람은 따스하게!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스마트팜 청창농
체크리스트

박정윤 대표

LIVE

Interview

스마트팜 청창농



박정운 대표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A

스마트팜을 어떻게 하면 시작 할 수 있을지 알아보던
중 20개월 동안 스마트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해주는 청년창업 보육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무료)까지 많이
해줘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직장생활 할 때 내가 이뤄낸 성과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당시 크게 회의감이
들어서 땀과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던 중 농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ICT 기술을 접목해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에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

김제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농산물 판매자로
참가해 직접 키운 오이를 판매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부산을 떠나 김제로 전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지역공동체로서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이 좋았어요. 축제 기간 3일 동안
수확했던 오이 모두를 완판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는데 직접 키운 작물에 대한 자긍심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결실은?

A

스마트팜은 물론 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던 제가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20개월
동안 작물 재배에서 수확, 판매까지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청년농부가 가져야 할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함께 보육사업에 참가한 동기생들과
서로를 의지하면서 농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Q 스마트팜 청창농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기반이 없고 자본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론교육 첫 시간에 들었던 생각은 ‘난 힘들 것 같다’ 였습니다. 스마트팜 특성상 초기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보육사업을 수료해도 바로 온실을 짓는 게 어려워 보였으니까요. 고민 끝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실히 교육받아서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거나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을 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 할 수 있었고 적은 자본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농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계속해서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고 막막해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길은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A 많은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교육센터 실습 때 되도록 많은 농장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료 후에야 깨달았거든요. 그중에서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수료한 선배 농장을 방문할 기회가 늘어난다면 기존의 선도 농가보다 창업이나 경영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본인만의 스마트팜 창업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A 저는 임대형 온실에서 창업했기 때문에 입주를 위한 준비가 어려웠습니다. 과채동의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서류, 시험, 면접 이 세 가지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1순위가 돼야 원하는 온실에 입주할 수 있었으니까요. 농작업이 늦게 끝날 때도 밤늦게까지 남아 필기시험 공부를 계속하고 주말에는 팀원들과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등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원하는 온실에 입주했어요.

Q 스마트팜을 창업하면서 도움 받은 정부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A 기본적으로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받고 영농 정착지원금은 초기 소득이 불안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또한 스마트팜 보육사업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마케팅, 회계 분야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멜론 농장

전남 나주시
세지면



교육기관
전남 고흥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기간
2021년 9월 ~
2023년 4월

농장위치
전남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349-18

주요품목
멜론

운영현황
자가창업
시설면적 1,983㎡
(600평)
전체면적 2,644㎡
(80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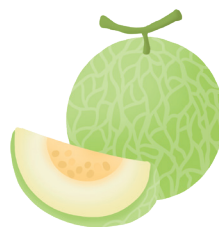


아버지의 길을 따라,
무지개를 꿈꾸는 농부



이지명 대표

이제 막 서른.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했다.
농사짓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지만, 그때는 몰랐던
생동감을 이제야 느낀다고.
아버지의 토마토 농장 바로 옆.
이 대표의 멜론농장은 생명력이 넘친다.
스마트팜 선배이자 스승인
아버지를 따라
농부의 길을 걷고 있는 이지명 대표.
그의 꿈 이야기를 들어봤다.



농부가 되기로 결심하다

이슬비가 내리는 오후. 잘 정리된 농로를 따라 무지개농장에 들어섰다. 새로 지은 3연동 비닐 온실. 주변의 비닐 온실과는 규모며 생김새가 한눈에 봐도 다르다.

“아버지와 둘이 직접 지었어요. 아버지가 온실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그런데 저는 처음이니까 더 힘들었죠.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부르트고 피가 나도록 일했는데 그래도 막상 다 지어놓고 나니 뿌듯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토마토 온실은 아버지 일터. 이제 여기는 제 일터입니다.”

장장 7개월에 걸친 대작업이었다.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아버지 농장일을 도우며 저녁 시간을 이용해 만든 온실. 고생은 했지만 온실 전문가인 아버지 덕에 최소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온실 건축비용을 50%나 줄일 수 있었으니 말이다.

“아직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은 설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스마트팜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현재는 양액 제어기와 기름 난방 등 멜론 재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만 갖추고 있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차차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농사일. 하지만 아버지는 남달랐다. 다른 사람들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는 온실에서 온갖 장비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고. 그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게 뭐지? 신기하고 궁금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광고를 보게 된 거죠. 아! 하고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농사가 이거였구나. 나도 해봐야겠다.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보육센터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 대표는 아버지를 따라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다. 스마트팜을 알게 되니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졌고 틈틈이 아버지 일을 돕는 시간이 즐거웠다. 대학을 다닐 때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도 농장 일을 도왔지만 그때 느끼지 못했던 감흥이 이 대표를 설레게 했다. 결국 아버지는 이 대표에게 최고의 멘토이자 스승이 되어주었고 전남 고흥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의 교육은 이지명 대표의 인생을 스마트팜의 세계로 이끌었다.



나를 키우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보육센터 교육과정은 매우 흥미로웠다. 2개월 이론 수업이 끝난 후 실제 스마트팜 시설을 운영하는 선배 농가에서의 6개월 교육형 실습 과정 그리고 직접 작물을 재배해 볼 수 있는 경영형 실습까지. 교육형 실습 때는 전남 화순에 있는 4천 평 유리온실로 일주일에 세 번 출·퇴근 하며 일을 배웠고 그다음 경영형 실습 때는 전남 고흥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컨설턴트의 지도 아래 직접 작물을 재배해 볼 수 있었다.

“1,300평이요. 10명이 팀이 되어 멜론을 재배했어요. 마침 컨설턴트도 이곳 세지면에서 멜론을 하는 분이셨고요. 12개월에 걸쳐 설비 요소와 운용 방법 등 직접 스마트팜을 운영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멜론은 성공적이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학교를 두 군데 다닌 셈이죠. 집에서도 배우고 보육센터에서도 배우고. 집에서는 비닐온실 보육센터에서는 유리온실. 작목도 같고 양액 재배도 같으니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저는 몇 번씩 볼 수 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사람마다 재배 방법이 매뉴얼과 다르거든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아버지는 초기 스마트팜 선배인 셈이다. 양액 재배가 처음 나왔던 초창기부터 뛰어들어 멜론을 했고 이 대표 또한 그런 아버지를 보며 멜론 농사의 꿈을 키웠으니 말이다.

“혼자 하면 10년 걸릴 거를 2년, 1년에도 할 수 있으니까요. 선배나 멘토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의 지식과 경험 등 좋은 것을 흡수하면 나도 빨리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또 방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팜을 알고 나니 농사에 관한 생각도 달라졌고 어느새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저 놀라울 뿐이라며 땅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원 없이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지명 대표. 보육센터에서의 시간은 작물을 키우는 동시에 농부를 키우는 성장의 시간인 모양이다.



무지개 농장에서 꿈을 키우다

인터뷰 잘하라고 응원을 해줬다며 아내 이야기를 하던 이 대표가 미소를 짓는다. 사실 이 대표는 새신랑이다. 지난 8월 26일 결혼을 했다. 새롭게 꾸린 가정과 함께 그래서 더욱 큰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이 대표. 농장 이름을 ‘무지개’로 지었다.

“꿈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올해는 온실 짓느라 1작기 했지만, 내년에는 3작기 예정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약 6천만 원 정도인데 앞으로 더 많이 벌어야죠. 사실 여기 ‘세지 멜론(나주시 세지면에서 생산하는 멜론)’이 유명하거든요. 전국 생산량의 60% 정도가 세지 멜론입니다. ‘세지’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다른 곳보다 가격도 더 받을 수 있고요. 게다가 멜론은 상품성을 내면 낼수록 가격을 더 높일 수가 있어서 고급화도 가능하니까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당도 높기로 유명한 세지 멜론. 이곳에서 수확된 멜론은 세지 멜론연합회를 통해 세지농협으로 전량 납품된다. 농가는 멜론 생산에만 전념하고 세지농협은 선별과 판매를 전담하는 구조다. 일손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는 멜론 농가들이 많다 보니 베테랑 친구들이 많거든요. 하엽 제거나 적심 등 필요할 때 5~7명씩 와서 일하고 가고 평소엔 아버지랑 둘이 하고요.”

판로 걱정도 없고 초반 작업도 끝났고 이제 멜론이 크기만을 기다릴 차례. 그렇다고 쉴 순 없다. 재배동 공사가 끝났으니 이제 작업동을 만들 차례. 사무실과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고 나면 2년 정도 멜론 재배 기술과 안정적인 수익에 집중하면서 재배동 확장도 고려해볼 계획이다.

아버지의 온실에서 자라는 토마토와 이 대표의 온실에서 자라는 멜론까지 가족의 소망이 담긴 무지개농장. 혼자가 아닌 아버지와 함께하는 농사이기에 오늘도 이 대표는 더 큰 꿈을 키운다.



아버지가 주신 인내와 기다림의 선물

하나하나 줄에 매어져 있는 멜론 열매. 멜론의 단맛은 햇빛의 양과 비례하기 때문에 열매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갔을지 이렇듯 작물은 농부의 땀방울을 먹고 자란다. 심 없는 손길에 잘 자라다가도 조금만 손길이 덜 가면 금세 표가 난다. 작은 한 포기 모종이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어느 과정 하나 버릴 것 없이 모두가 필요한 과정이다.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농사라는 게 잔꾀를 부려도 안 되고,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요. 전체적인 과정을 넓게 바라볼 줄도 알고 때론 작은 일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하더라고요. 온실 안에 서 있으면 겸손해 지는 것 같아요.”

땀 흘려 일한 뒤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 농사를 지으면 철학자가 된다더니 이제야 이 대표는 자연의 섭리와 더불어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다.

“사실, 저는 아버지 옆에서 계속 농사일을 같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죠.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처음이니가 당연히 힘들죠. 멜론 키울 때도 보통 하루 6시간~8시간 정도 작업을 해야 하는데 몇 시간 못 버티고 다들 한계에 다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배워서 아는 것과 직접 하는 건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아버지 덕분이죠. 저는 현장에서 이미 다 배우고 경험했으니까.”

일은 온실에서 하지만 정작 농사일은 ‘야생’이라고 표현하는 이 대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단다. 자신이 느꼈던 걸 후배들은 좀 더 일찍 깨닫고 알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익혔으면 좋겠어요. 이론 수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현장이잖아요. 농사짓는 현장을 직접 보고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보육센터 교육과정에서도 특히 교육형 실습과 경영형 실습은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합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걷는 이 대표의 무지개농장에는 1년 365일 달콤한 향 가득한 멜론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것이다.



전남 나주에서
기르는
멜론 작기



육묘
육묘장에서 구입



정식
8월



수확/출하
11월

✓ 창업 일은 언제?

2023년 2월
자가 창업



✓ 창업자금은 얼마?

약 3억 원
(토지 및 시설비 포함)



✓ 창업자금 마련은?

부모님
개인저축



✓ 온실 종류는?

3연동 비닐온실



✓ 인력 운영은?

상주인력 2명(아버지와 본인)
필요시 비상주 인력 활용



✓ 연간목표 생산량과
예상매출액은?

평당 10만 원 목표
3작기 약 6천만 원 예상



✓ 주요 판로는?

세지멜론연합회를 통한 판매



이지명 대표

‘많이’ 일하고 ‘적게’ 얻을 마음으로 일해야!

이 세상 법칙은 분명합니다. 많이 일하고 적게 얻을 마음으로 일하면 어떤 일을 하든 이겨 낼 수 있죠.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일하면서 많이 거두기를 바라면 그건 안 되죠. 많이 일하고 적게 얻을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면 결국 다 잘될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농사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보면 삶을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를 알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팜 청창농
체크리스트
이지명 대표

LIVE

Interview

스마트팜 청창농



이지명 대표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A

평범하게 정시 출퇴근하는 직장을 갖고 싶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토마토 농사일을 돕다 보니 농사에 흥미를 갖게 되었죠. 빨리 일을 배워서 자리 잡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양액재배를 하고 계셨는데 같이 하다 보니 궁금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우연히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고 스마트팜에 대해 배우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스마트팜 선배인 아버지 덕분입니다. 일찌감치 스마트팜에 눈을 뜨신 아버지는 초창기부터 양액 재배를 해오셨거든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뒤늦게 알고 나니 이거다 싶더라고요. 덕분에 제 미래를 스마트팜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

6개월 동안의 교육형 실습과 12개월의 경영형 실습입니다. 일단 교육형 실습은 전남 화순 약 4천 평가량 유리온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장에서 보고 듣고 배웠는데 실제로 첨단 장비와 시설을 대부분 갖추고 일하는 걸 보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스마트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나라면 어떻게 할지 어떤 식으로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지 고민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경영형 실습 때는 집 농사일에 보육센터 농사일까지 시간이 부족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할 때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덕분에 다양한 시설 운영과 재배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배워서 나중에 규모도 늘리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해나가면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결실은?

A 농사에 대한 배움도 결실이지만 무엇보다 컨설턴트 및 다른 선배 농가들이라는 멘토가 생긴 게 가장 큰 결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보며 스마트팜을 꿈 꿀 수 있었고 저 또한 조금씩 자랄 수 있으니까요.

Q 스마트팜 청창농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아무리 부족해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좋은 멘토가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스마트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재배 방법이나 시설 투자로 고민 될 때 무작정 혼자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들여다보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와 상의했으면 합니다. 욕심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급하지 않게 여유를 가지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A 교육형 실습 및 경영형 실습을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보육 센터에서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직접 일해보야 바깥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시장 상황도 몸으로 느끼고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현장실습 과정이 앞으로 스마트팜을 하는데 큰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샤인머스켓 농장

전남 나주시
반남면



교육기관

전남 고흥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기간

2021년 9월 ~
2023년 4월

농장위치

전남 나주시 반남면
자미로 131

주요품목

샤인머스켓

운영현황

자가창업
샤인머스켓 시설면적
5,950㎡(1,800평)
임대형 스마트팜
토경 멜론 시설면적
7,273㎡(2,200평)



근면과 노련함으로
현재까지 이상 무,
스마트팜 특수임무 수행



나수희 대표

스마트팜 창업 준비 및
실행 과정 노하우.
나수희 대표가 땀땀이 쓴 종이를
한 장 내밀었다.
한눈에 쏙 들어오게 정리된
11개의 뼈 있는 충고.
한 줄 한 줄에 담긴 선배 농업인의
현실적인 조언 속에는 실패와 성공을
넘나들며 온몸으로 체득한
나 대표의 진심과 고민
그리고 땀과 열정이 스며있었다.



제3의 인생을 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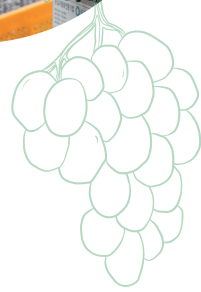
비가 내리는 오후. 차에서 내리자 향긋한 포도 향기가 먼저 손님을 맞는다. ‘한아름농장’이라는 풋말이 보디더니 이내 알알이 탐스럽게 익은 샤인머스켓 상자들이 보인다. 산지 직판을 하는 모양인데 농장이 길옆이라 제법 오가는 손님들이 많다. 온실 오가며 포장하랴 손님 대응하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나 대표.

“요즘 정말 바쁘네요. 그래도 바쁜 게 좋은 거잖아요. 손이 한 열 개 되면 좋겠어요.”

온실을 둘러보니 그럴 만도 하다. 1,800평 드넓은 온실 안엔 봉지에 쌓인 샤인머스켓이 주렁주렁. 포도 재배부터 관리, 수확, 포장, 판매까지 온통 나 대표의 손이 가야 하는 일거리투성이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이곳 샤인머스켓 농장은 직접 자가 경영을 하는 곳이고 임대형 스마트팜 한 곳을 더 운영하고 있다고.

“임대 농장은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올 3월에 재배를 시작했어요. 토경 멜론을 했는데 이미 1작기 끝나서 이제 감자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다음 감자를 2작기 하고 나서 다시 멜론을 하고 이렇게 총 3작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바쁘네요. 아침에는 거기서 일하고 바로 또 여기 와서 일하고.”

샤인머스켓 1,800평에 임대 농장 3,200평까지 무려 4,000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 나 대표는 어떻게 혼자 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나 대표의 독특한 이력을 알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특전사 20년 근무. 그렇다. 영화에도 종종 등장하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 특수부대. 강철같은 체력과 정신력으로 어떠한 악조건에도 작전을 수행해 내는 멋진 사나이. 바로 나수희 대표 얘기다.



“전역하기 3년 전부터 한국방송통신대 농학과에 편입해서 졸업했어요. 농업에 관심은 있었죠. 전역 후 어떤 사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은 작물을 키워서 먹는 그 자체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농업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 가지 알아보는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공지가 딱 뜨더라고요.”

그 순간 번개가 머리를 치는 것 같았다는 나 대표. 스마트팜 지원 가능 나이가 만 39세였기에 1984년생인 나 대표로서는 더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하고 20개월 동안 전남 고흥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다.

“제3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1세대는 태어나 학교에서 공부하며 보냈고 2세대는 군에서 보냈고요. 제가 19세에 군에 갔거든요. 군에서 정년까지 있을 수도 있었지만 빨리 전역해서 3세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인으로 살고 있는 지금이 3세대 인생입니다.”

딱 60세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 다 쏟아 넣겠다는 나 대표. 다음 4세대 인생은 농장 관리자나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단다. 그래서 지금 3세대에 10억을 모으는 게 목표라니 인생 계획 한번 확실하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의 선택

동기생에게 슬쩍 나 대표에 관해 물었더니 이미 보육센터에선 나 대표를 모르는 사람이 없단다. 나이도 많고 군 경험도 있다 보니 교육받는 내내 동생들 챙기는 만형 역할을 해주었다고.

“처음엔 나이가 많으니까 동생들과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팀이 되면서 친해졌어요. 경영형 실습 때 멜론을 재배했는데 저는 이미 나주에서 멜론을 하고 있었으니까 일 한 번 더해봤다고 선배 아닌 선배가 된 거죠. 이렇게 하면 편하더라. 저렇게 작업하면 효율적이더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나 대표는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여기 나주 농장을 인수한 상태였거든요. 농장은 나주인데 교육은 고흥이니까. 여기 관리하면서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한 거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 배울수록 독립경영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지만 그만큼 고민도 깊어졌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막상 수료 후 자가 창업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스마트팜은 시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떤 작물이든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자 대비 수익을 내려면 규모가 상당히 커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수료할 때쯤 원자재 가격이 두 배 정도 올랐어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오르고. 막막했죠. 스마트팜을 하고는 싶고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이 농장을 인수하게 된 겁니다.”

나 대표의 사정을 알게 된 지인이 제안을 해왔다. 노후 된 온실이 있는데 시설 보수를 해서 해보겠느냐고. 대신 임대료를 저렴하게 주겠다고. 결국 나 대표는 고민 끝에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약 3,000만 원을 투자해 시설 보수를 했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 필요시에만 인력을 활용하고 대부분은 혼자서 해나갔다.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한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땀으로 일군 결실

포도알이 주먹만 하다. 기존에 운영하던 농장을 인수했다고는 하지만 포도 농사는 처음인데 이만하면 100% 만족한다는 나수희 대표.

“아직 샤인머스켓에 대해 잘 모르니까. 올해는 한 6톤 정도. 내년에는 작게 잡아서 12톤. 약 1억 2천만 원 예상합니다. 그리고 임대 농장 같은 경우엔 멜론은 1억 6천만 원. 감자는 4천만 원. 합해서 2억 정도 될 것 같고요. 매출로 봤을 때.”

대단하다는 말에 나 대표가 웃는다. 하지만 올여름을 생각하면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란다. ‘애간장 녹는다’는 표현으로 부족할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다고.

“아직 포도 농사에 대해 잘 모르는데 아는 분이 ‘만개 후 삼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나무가 꽃이 언제 필지도 모르는데 이게 도대체 며칠을 말하는 건지 이런 소소한 것들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날마다 가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포도나무 옆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유난히 뜨거웠던 올여름. 알알이 영근 포도나무 한 그루를 키워내기 위해 나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다. 덕분에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과 함께 좀 더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요즘 스마트팜 기반 구축 사업 같은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일단은 관수시스템하고 그다음 온도 관리도 도입하고 하나하나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젠 지속적인 수입원이 있으니까 스마트팜에 도전해 봐야죠. 내년에 준비해서 후년에는 공사할 수 있게끔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진짜 농사꾼이 되는 법

선배로서 보육센터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하자 나 대표가 잠시 망설인다. 같은 농업인으로서 매정해 보이지만, 하지만 현실을 알아야 한다는 그의 생각때문이다.

“스마트팜은 정말 편리하고 좋죠. 하지만 농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하게 농사짓겠다고 생각하면 아예 시작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내 농장에서 내 작물을 키우고 싶다면 내 몸 갈아서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면 저는 그 사람 성공할 거라 보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하는 선배로서의 바람입니다.”

20년, 30년, 평생 농사를 지은 분들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농사라고들 한다. 작물을 키우면 키울수록 어렵다고. 그러나 모든 건 본인 하기 나름이다. 나 대표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주변에서 농사짓는 선배 형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인드가 사장으로 바뀌면 망하게 돼 있다고요. 농업 경영인이 아니라 진짜 농사꾼이 되어야 한다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식처럼 키운 작물들 다 말기고 보러 가지도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농사꾼이 아니죠. 결국 농업 경영인도 농사꾼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면 성실은 기본 장기적인 계획과 현실적인 전략을 갖춘 자신만의 청사진을 가진 나수희 대표. 창업을 꿈꾸는 스마트팜 예비농업인들에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며 어느덧 그도 진짜 농사꾼이 되어간다.



전남 나주에서
기르는
샤인머스켓 작기



전정
1월



집중관리
4월 ~ 8월



수확/출하
9월초 ~ 9월 말

✓ 창업 일은 언제?

2023년 3월
자가 창업



✓ 창업자금은 얼마?

약 5억 4천만 원



✓ 창업자금 마련은?

귀농귀촌 자금
개인 적금



✓ 온실 종류는?

비닐온실 광폭형
연동 및 단동 온실



✓ 인력 운영은?

상주인력 1명(본인)
필요시 비상주 인력 운용
(2024년부터 계절
근로자 2명 고용 예정)



✓ 연간목표 생산량과
예상매출액은?

샤인머스켓 약 12톤 /
1억 2천만 원 목표
멜론 및 감자 각 40톤 /
2억 원 목표



✓ 주요 판로는?

로컬푸드
농장 직판
온라인스토어 판매 및
외주판매



나수희 대표

‘적시’에 ‘적절’하게

농사는 때가 있습니다. 계절별 날짜별 시간별 그때 그대 상황에 맞게 해줘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조금만 늦어도 조금만 빨라도 그 사소한 차이로 인해 한 해 농사를 망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죠. 적시에 적절하게 환경을 조절해줘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팜 청창농
체크리스트
나수희 대표

LIVE

Interview

스마트팜 청창농



나수희 대표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A 우연히 인터넷 검색 중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센터 공지를 보게 되었어요. 이전부터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노지는 가면 갈수록 힘들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온실 재배 쪽으로 생각하면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20년 동안 군대 생활 하면서 전역 후를 항상 고민 했거든요. 전역하기 3년 전부터 한국방송통신대 농학과에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농업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 스마트팜에 관심이 생기더라 고요. 더 늦기 전에 해보고 싶어서 도전했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참여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 경영형 실습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당시에 고흥에서 원룸을 잡아서 지냈었는데 갑자기 나주에 있는 농장을 인수하게 되면서 고흥과 나주를 오고 가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 에도 팀원들과 멜론 재배하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3명이 한 팀으로 2,500평에서 멜론을 재배했는데 1작기에 약 7천만 원 매출 올렸어요. 힘들긴 했지만, 지금 농장 운영하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얻은 결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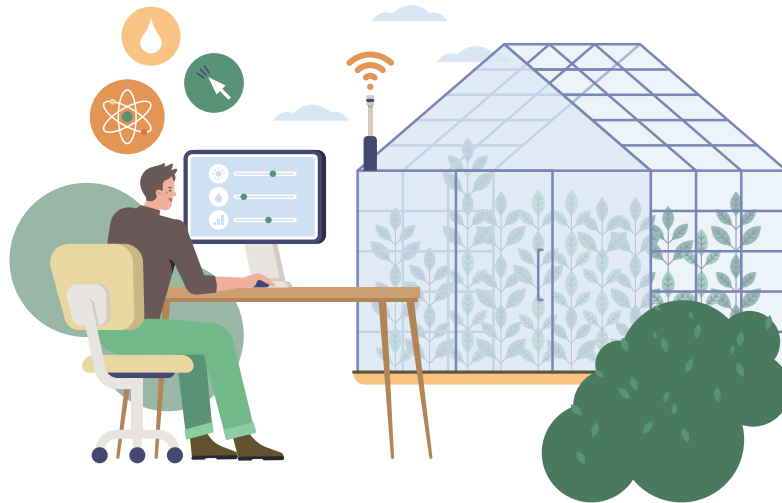
A 재배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업 현장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도전정신이 가장 큰 결실 같습니다. 아무리 스마트팜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이 끝이 아니니까.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무장을 해야 수료 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Q 스마트팜 청창농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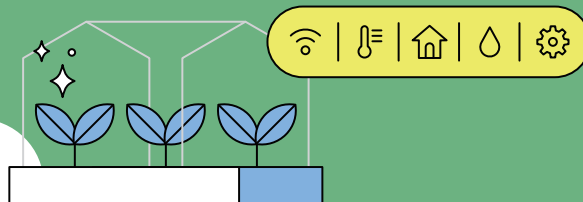
A 농사라는 게 혼자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누군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야 하고요. 물론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선배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고민을 나누다 보면 해결이 될 겁니다. 농사는 함께 짓는 거니까요.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A 보육과정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농업인 자금 지원정책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토지 300평이나 온실 100평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청년들이 300평이나 500평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데 막상 영농 확장을 하려고 해도 그때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자기 명의 농지가 없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수도 작고 수익도 많지 않을 텐데 이미 농업에 발 들인 이런 사람들이 빨리 커서 다시 도시로 나가지 않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한 사항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팜이란?



스마트팜 정의

비닐하우스·축사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스마트팜 의의

작물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절감하여 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증대



스마트팜 운영원리

생육환경 유지관리

SW온실·축사 내 온·습도, CO₂ 등
생육조건 설정

환경정보 모니터링

온·습도, 일사량, CO₂ 생육환경 등
자동수집

자동·원격 환경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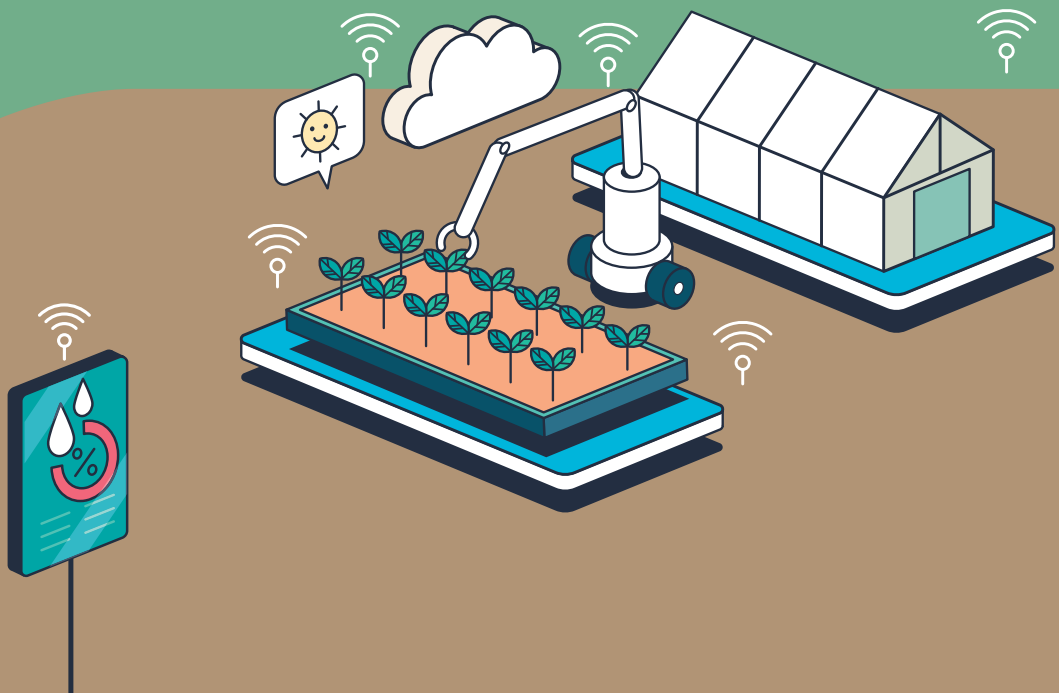
냉·난방기 구동, 창문 개폐, CO₂,
영양분 공급 등



스마트팜 기대효과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의 확산은
노동·에너지 등 투입 요소의 최적화된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역할을 수행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온도와
습도 등을 최적으로 맞춰주고,
양분 사료 에너지 등은 필요한
양만큼만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비는 낮아지게 됨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개요

- 교육대상**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취·창업 희망하는 청년 208명 * 만18세 이상 ~ 만39세이하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단, 재학생 또는 취업자라도 20개월 보육과정 중 의무교육시간 이수)
- 교육기관** 전북 김제 보육센터, 전남 고흥 보육센터
경북 상주 보육센터, 경남 밀양 보육센터
- 교육혜택**
- 교육 수강료 국비지원(무료)
* 단, 경영형실습 중 지자체와 임대계약 후 경영형실습을 하는 경우는 공공요금 등 투입비 자부담 및 수확물 교육생 소유
 - 교육형·경영형 실습비 지원
* 1일 월 70만원 한도 / 단, 보육센터의 상황에 따라 지원방식 상이 할수 있음
 - 임대·자기온식 경영형 실습 재료비 지원
* 교육생 1인당 연간 360만원 한도
* 종자비료·배지 구입 등 실습에 필요한 도구 구입 비용 지원(관련 증빙자료 제출必)
 - 국내·외 우수 현장 전문가의 영농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 수료생(수행실적 우수자)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우선권 부여
 - 수료생 대상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자격 부여,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점 부여,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인원 배정(100명)
 - 수료생 대상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비율 우대

교육생 선발 계획

선정방법

Step 1

적격심사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누락 및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서류 심사 대상으로 선정

Step 2

서류심사

지원동기의 구체성, 창농 계획의 적절성 등의 내용을 심사하여 면접 대상으로 선발 (최종 합격인원의 2배수)

Step 3

면접심사

스마트 농업에 대한 열정 및 자세, 영농정착 가능성, 친화력 및 소통능력 등을 심사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발

* 교육생 모집정원의 30%범위(센터별 16명) 내에서 혁신밸리 지역 거주자 우선선발 가능

신청기간

2024. 5~6월(예정)

신청방법

스마트팜코리아 홈페이지(www.smartfarmkorea.net) 회원가입 후
'스마트팜 교육 - 청년창업보육센터 신청 - 모집공고' 를 통해 온라인 신청



교육혜택

창업보육

스마트팜 창농을 위한 이론교육·교육형 실습·경영형 실습 등 전 과정에 대한 보육관리를 통해 스마트팜 분야 핵심 인재 육성(20개월 과정)

입문(이론) 과정

2개월,
180시간 이상

스마트팜 농업기초(경영관리·시설관리·작물관리, 품목재배), 스마트팜 관련 정보통신기술 및 데이터 분석 교육 등

* 첨단기술(CT, IoT 등) 및 데이터 이해 관리 등 외부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특강 등 진행



교육형 실습

6개월,
480시간 이상

보육센터 실습온실과 스마트팜 선도 농가·온실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경영 노하우 축적 및 벤치마킹 등



경영형 실습

12개월,
960시간 이상

교육생 자기 책임 하에 영농·경영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경영실습 온실 구역 제공, 팀별(2~3인) 실습 교육 진행



문의사항

- ☎ 스마트팜 콜센터 1522-2911
- ☎ 경북 상주 054-537-8826
- ☎ 경남 밀양 055-254-4754

- ☎ 전북 김제 063-290-6436
- ☎ 전남 고흥 061-830-5044



스마트팜 청년창업

☆ 꿈을 이루다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 소	세종시 다솜2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디자인·인쇄	윤기획

미래농업 선도와
농촌가치 확산으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을 실현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농촌 혁신성장 동반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